



廣州李氏會報

<p>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p>	<p>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p> <p>勉爾孜孜 惜寸陰 면이 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p> <p>老矣無能 徒自悔 노의 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p> <p>頭邊歲月 苦駸駸 두 변 세 월 고 침 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p>	<p>遺子滿籩金 유자만 빈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p> <p>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p> <p>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p> <p>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p>
----------------------------	---	--

대중회 신년교례회 성대히 개최



대중회는 2024년(甲辰)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0일(수) 오후 5시, 명동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교례회에는 집행부와 임원, 각 지파 회장 및 집행부, 외빈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소장, 퍼시픽호텔 회장 등 100여 종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날은 외손으로 정대철 헌정위원회 회장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양재 총무이사 사회로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조상님에 대한 묵념, 모두가 함께하는 신년 인사와 참석 내빈 소개, 장수축하금 전달, 대중회 주영 회장의 인사, 재진 전 회장의 축사, 대한민국 헌정위원회 정대철 회장의 축사, 종배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 신년 떡케익 커팅의 1부가 끝나고, 2부 식사를 겸한 대화의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주영 회장은 「권위와 힘, 행운과 부유, 장수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가 시작되면서, 용의 힘을 받아 18만 광주이씨 일가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린다」면서 「선조의 유덕을 받들어 종친 간의 돈독과 선영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보존에 충실을 기하고, 나아가 후손에 대한 충효사상을 발양, 훈육 선도와 인재 양성에 힘씀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대중회가 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첫째 새로운 수의 창출을 위한 대비책으로 삼성동 수도빌딩 재건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방안을 검토 추진하며, 둘째 광주이씨 종인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광주이씨의 날 행사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 한글세대 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간 서적 및 제례 관련 용어 등의 한글화 작업을 검토하겠다」면서 「대중회 방침에 각계각층 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중회 전 재진 회장은 「광주이씨 18만 종인이 한마음으로 뭉쳐 대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하였고, 외손이신 정대철 회장은 「광주이씨의 위대성에 대하여는 모진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가장 발전한 국가가 되었듯이 우리나라 성씨 중 가장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광주이씨가, 사회 각층에 인재들이 지금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사회의 주역이 되고 종인들간 돈독하여 더욱 발전하기를 축원한다」는 덕담을 하였다.

또한 종배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광이로 태어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문종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으며,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광이가 더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회 각층의 종인들로부터 대중회의 발전과 종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와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된 행사는 새해 케익 절단과 건배로 공식 교례회를 마치고, 준비된 뷔페식사를 나누며 종친 간 화합과 친목의 자리를 가졌다.



신년을 맞아 대종회 집행부 선대 묘소에 성묘 다녀오다



2024년도 갑진년 설이 지나고 대종회 상근 임원들은 2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선대조 묘소에 성묘를 다녀왔다.

14일에는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하여 12시경 영천 묘역에 도착하니,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

회 태동 회장을 비롯한 수호관리위원들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때아닌 겨울비가 내리는 중에 묘역을 바라보니 잘 가꾸어진 잔디가 넓은 황금 묘역을 이루어 주위 소나무 숲과 함께 조선 8대 명당의 면모를 보여주며 포근함을 안겨 준다.

안타깝게도 비가 내려 묘전에서 예를 올리지 못하고, 재실에서 간단하게 제물을 진설하고 문중의 번영을 이루어 주신 시조(始祖) 판서공(諱 唐) 할아버지께 감사와 새해 희망을 담아 정성껏 참배를 드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동안 오른쪽 산맥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균락을 이루어 주변을 어둡게 했던 대나무(竹)를 수호관리위원들이 깨끗하게 간벌 작업을 해 놓았다.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성묘를 마치고 일행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상호소식과 묘소관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후 흐뭇한 마음으로 귀경하였다.

이어 15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으나 정해진 일정인지라, 먼저 하남시 덕풍동 소재 시조비(貞夫人 仁華李氏) 묘소에 참배를 드린 후 성남시로 자리를 옮겨 묘전 예를 올리지 못하고 추모제 사당에서 예를 올렸다.

2024 문화행사 일정표

구분	일 자(음력)	2024년(양력)	봉행 장소	
세일사	시조 판서공(휘 당)	10월 2일	11월 2일(토)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121 (광릉 1길 23)
	시조비(정부인 인화이씨)	10월 4일	11월 4일(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24-1 (하남대로 888)
	둔촌선생(휘 집)	10월 5일(오전)	11월 5일(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청백리공(휘 지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1
	사인공(휘 장손)	10월 5일(오후)	11월 5일(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관찰사공(휘 예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
	광원군(휘 극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
	좌통례공(휘 극건)	10월 10일	11월 10일(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산 55-1
	충희공(휘 인손)	10월 6일	11월 6일(수)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56-26
	참판공(휘 극기)	10월 8일	11월 8일(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3
	문경공(휘 극감)	9월 9일	10월 11일(금)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90-1 (수회길 97)
	광천부원군(휘 극증)	10월 7일	11월 7일(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4-1
	목사공(휘 자유)	음 10월 7일 주간 토요일	11월 9일(토)	경기도 하남시 향동(고골) 산 64
	문숙공(휘 지강)	10월 10일	11월 10일(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67-1
	광릉부원군(휘 극배)	10월 12일	11월 12일(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 12-4
불천위제	둔촌선생(휘 집)	6월 6일	7월 11일(목)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20 (추모재)
	청백리공(휘 지직)	7월 20일	8월 23일(금)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20 (추모재)

※ 각 지파 문중별 불천위제례 봉행은 생략함.

대중회 단신

2023년도 정기감사 실시

대중회는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회계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근재, 용문 감사는 휴일도 없이 편치않은 숙박을 하면서도, 대중회가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감사하였다. 대중회 감사결과는 3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지파 총회장 자문위원회

2024년 2월 21일 대중회는 임원회의 및 총회를 앞두고 지파 총회장 자문회의를 5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열 분의 자문위원 중 여덟 분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23년

4월 이후 경과 업무를 보고하고, 현안 및 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게 되는 의안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시간 여의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못다 한 종사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대중회 발전적 운영방안을 위한 논의

대중회는 제반 업무 및 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파 총회와 임원 및 대의원 등 많은 종인들이 건의 및 요구해 온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선하거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2024년 2월 20일 10시 대중회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 각 지파 및 부문별 의안을 감안하여 선정한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

날 주요 의제는 축문 및 흥기의 한글화, 불천 위제를 병행하는 둔촌선생과 청백리공의 세 일사 병행 지속 여부, 광이의 날 행사와 전국 청장년연합대회의 중복 행사 관련 운영방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관련 출산 종인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여주 봉사정의 보존과 관련된 관리방안, 현재 진행 중인 현양사업에 대한 운영 방안 등으로 위원들은 좋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후 대중회는 의견을 검토 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중회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예정

대중회는 3월 6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3월 29일 10시 30분 종로구민회관 2층 창신아트홀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파총회 소식

총회공중회

총회공(諱 仁孫) 선조 '설' 명절 성묘 실시

2024년 2월 16일(금) 11시, 총회공중회(회장 경래)에서는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총회공(諱 仁孫) 선조 묘소를 찾아 갑진년 '설' 성묘를 다녀왔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2월의 한가운데 저 멀리 아지랑이가 어른거리고, 새싹의 잎이 싹 트는 따사로운 날씨에, 광릉부원군파총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총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총회 종성 부회장, 광원군파총회 석래 부회장, 좌의정

공파총회 총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및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였다.

묘역을 찾은 5군 집행부 임원 및 종인들은 오랜만에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으며 정성껏 준비해 간 제수를 진설하였다. 승재 총무의 진행으로 종회의 무탈함과 종인 간의 화합을 선조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기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히 성묘하였다. 성묘를 마친 참배객들은 여주 시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열근한 매운탕에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면서 답소를 나누었다. 할아버님의 훌륭하신 업적을 다시 새기며 풍요의 고장 여주에서의 명절 성묘 일정을 마쳤다.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넓듯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총회공 경래 회장의 묘



총회공 선조 성묘

소수호관리위원(종봉)의 수고에 대한 치사가 있었다. 성묘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 총회공중회 총무 승재 기

관찰사공중회

관찰사공중회 하남, 성남 성묘 다녀오다

광주이씨 관찰사공중회(회장 재석)는 2024년 2월 14일 예하 참판공파총회와 좌통례공파총회 종인들과 함께 설 성묘를 다녀왔다.

이른 아침 하남시 덕풍동 시조비(貞夫人 仁華李

氏) 묘소를 참배하고 성남시 하대원동으로 발길을 돌려 둔촌선생(諱 集), 청백리공(諱 之直) 그리고 관찰사공(諱 禮孫), 예조참판공(諱 英賢), 참판공(諱 克基) 선조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날 성묘에는 참판공파총회 선례 회장과 총무 및 재무, 좌통례공파총회 택수 회장과 총무 및 재무, 성환 감사, 응호, 강래, 현주, 종승 종인이 함께 했으며, 성묘를 하기전 하남 소재 시조비 묘소에 미리 도착해서 묘소를 관리(제초제 살포)했던 경기남부청장년회 문재, 무환 회원이 동참하였다.



관찰사공중회 성묘



관찰사공종회 척사대회

참배를 마친 일행은 늦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종사관리에 관한 담화를 나누었다.

또한관찰사공종회화수회(회장재석)는 2024년 2월 23일 대보름맞이 척사대회(擲柶大會. 윗날이)를 개최하였다.

화수회원을 비롯한 종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수별(代數別) 전체 10개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 경기에서 20대 용기·용주 종원 팀이 우승을 하였다. 이날 집행부에서 준비한 푸짐한 술과 안주로 흥겨운 잔치가 되었다.

시상식을 마친 화수회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즐긴 후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예조 참판공 영현(諱 英賢)

자는 희성(希聖)이고 관찰사공(諱 禮孫)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통례원 통례 극견(諱 克堅)이고,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람(諱 擘)이며, 어머니는 목사 이승원(李承元)의 딸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이 곤궁했으나,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1525년(중종 20)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7년(중종 3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44년 시독관(侍讀官)·교리를 거쳐 사복시정에 승진해, 이듬 해 『중종실록』 편수관을 겸임하였다. 같은 해 응교·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응교로 있을 때 명종의 즉위와 함께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아 지방관과 한직으로 밀려나 9년을 지냈다.

다시 등용되어 교리, 직제학, 승지, 이조·형조참의, 한성부 우윤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1562년(명종 17) 청홍도관찰사(淸洪道觀察使)가 되었다.

그 뒤 파직되었다가 1570년 서용되어 한성부좌윤을 역임한 뒤 예조·형조, 공조참판, 개성유수 등을 두루 지냈다. 경연에 나가 시강할 때에는 풍부한 학식과 맑은 음성으로 왕의 칭송과 상을 받았으며,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판결이 분명하고 변동이 없어 법정이 숙연했다고 전한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 종우 기

광릉부원군파종회

■ 갑진년 신년 교례회 개최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4년 1월 12일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올 갑진년은 종인 모두 청룡처럼 비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종회 또한 날로 발전을 거듭나기를 소망하여 본다.

한편 이날 교례회에는 본 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대중회 용두 상임 부회장, 문경공파 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 오봉이신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경기 광주 무갑리종회 주혁 회장, 광주 대쌍령종회 주신 회장, 대전 해주목사공종회 익재



광릉부원군파 신년 교례회

신임 회장 외 초청 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례회는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참석자 상호 배례, 봉수 회장 신년사, 그리고 대중회 용두 상임 부회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내빈의 신년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문수 총무로부터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유훈 증 석복겸

공(惜福謙恭)에 대한 부연(敷衍) 설명이 있었다.

석복겸공(惜福謙恭)이란

우리는 흔히 한해가 바뀌면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과 인사를 건넨다. 그러나 광릉부원군계서 이르시기를 복을 지으라고 이르셨다. 다시 말해서 복을 아껴서 오래도록 누리라는 뜻이다.

평소에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서 복을 오래 누리라는 의미이다. 복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복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자만을 멀리하고 겸공(謙恭)하라.

모든 사물은 성(盛)하면 반듯이 쇠(衰)하게 되어 있다. 절약하고 검소함을 더함은 복을 아끼고 수명을 늘리는 법이다. 라고 하시며 큰 가르침을 남기셨다.

■ 고유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해주목사공종회 집행부 고유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대전 해주목사공(諱 萬亨)종회 신임 익재 회장은 신년 교례회 행사에 앞서 광릉부원군 파조님 부조묘(不祧廟)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진설 후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익재 신임 회장은 구랍 12월초 해주목사공 종회 종친들의 추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무는 용복 현종이 유임되었다. 고유제 봉행

은 종봉 화수회 총무의 집례로 고유문 독(讀)은 본 종회 만재 부회장, 좌우 집사에는 종길·종철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고, 초헌례는 익재 회장, 아헌례는 용복 총무, 종헌례에는 경기 광주 무갑리 종회, 주혁 회장이 헌작하였다. 그리고 세배는 탈렌트 겸 성우 종구 현종과 5군 지파 종회장을 대표해서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이 할아버님께 잔을 올리고 큰 절로 세배를 드렸다.

고유문

해주 목사 휘 만형 종회의 17대 익재 후손이 종회장으로 선출됨을 할아버님께 기쁜 마음으로 고하나이다. 할아버님 익재 후손은 근면 성실하고 모범적인 후손으로 이제는 선조님을 위해서 숭조와 봉사를 하고자 여러 종친들의 추대를 받아 해주 목사공 종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나이다. 이제 익재 후손은 기쁨보다도 두려움을 안고

할아버님의 고명하시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맡은바 종사에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할아버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조님께도 숭조하며 종친 간에는 화목과 돈목이 넘치는 아름다운 종회로 나아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아버님 16대손 용복(容福) 후손은 해주목사공 종회에서 수년 동안을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회를 반듯하게 이끌며 봉사를 하고 있는 후손입니다. 또한 할아버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조님께도 투철한 숭조정신으로 어떠한 일이던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후손임에 그에게도 풍부한 지혜와 용기를 듬뿍 담아 주시옵소서.

끝으로 대전 해주 목사공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동안 종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항재 전 회장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

■ 화수회 신년회 개최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 신년회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2024년 1월 22일 화수회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회는 종길 회장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종봉 화수회 총무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회원 상호간 배례, 종길 회장 신년사, 만재 종회 부회장 인사,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인사. 참석자 덕담 시간과 그리고 이밖에도 문수 총무의 종회 소식, 화수회 종봉 총무의 경과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

을 듣는 순서로 신년회가 진행되었다.

종길 화수회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도는 청룡이 비상하는 해로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고 가내에는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신년사에 가림하였다. 이후 회원들은 장소를 식당(마포갈비)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송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 문수 기

광천부원군파종회

■ 설 성묘 다녀오다

2024년 2월 7일(수)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는 각 지역 종회장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34-1 파조이신 광천부원군(諱 克增) 이하 7위 선조님께 갑진년 새해맞이 인사를 올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 간 제수를 진설하고

성묘를 하였다. 특히 이날은 2024년 1월 1일자로 선임된 온양지역 신임 종회장 종구 현종이 현작하며 선조님께 고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천부원군 선조님 이하 7위의 선조님께도 하산하면서 일일이 성묘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신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성묘 후 자리를 식당으로 옮겨 새해에도 종인 한분 한분의 무탈한 한해를 기원하며 반주와 곁들인 오찬을 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광천부원군 성묘를 마치고

- 광천부원군파 종회 종두 기

■ 문정 지역종회 장학금 전달식



문정종회 장학금 전달식

광주시 광천부원군파 문정종회 장학회(회장 종찬)에서는 2024년 2월 17(토) 17시, 문정종회 사무실에서 2024년 제 3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정종회 장학회로서 만수 총무의 사회로 1부 본식과 2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문정지역종회 종관 회장과 집행부 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장학금 전달에는 초등부 6명, 중등부 4명, 대학

부 4명, 대학원부 1명에게 수여 하였다.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 회원 및 며느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에 동참하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에 축하해 주었고, 수상자를 격려해 주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자리를 인근 식당으로 옮겨 화기애애하게 종친간의 화합을 위한 만찬으로 반주를 곁들이며, 장학회의 발전을 위한 건배를 하였다.

- 광천부원군파 문정종회 장학회 총무 만수 기

■ 수원지역종회 화수회 성묘 및 묘역 작업 실시

광천부원군파 수원지역종회 화수회(회장 완길)는 2월 24일(土) 화수회 결성 1주년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2023년도 화수회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의한 후, 낙향조이신 12대 선전관공(諱 呂字) 선조를 비롯한 선영에 성묘를 한 후, 전년도 사초작업으로 훼손된 잔



수원종회 묘역 정화작업

디 보수와 겨울에 들뜬 잔디에 복토를 하고 때때

작업으로 단단히 다져서 활착이 잘되도록 한 후, 겨울용 제초제도 살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영하의 기온임에도 정성껏 약 2시간여 동안 작업 후, 잘 정돈된 묘역을 보며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 하였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시내에 있는 오찬장으로 이동하여, 늦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간의 소회와 돈목을 다지고, 앞으로 화수회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광천부원군파 수원종회 화수회장 완길 기

광원군파종회

■ 광원군파 종회 설 성묘

갑진년 설을 맞이하여 광원군파종회에서는 2월 20일(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영면하여 계시는 둔촌선조 묘소와 청백리공 묘소를 성묘하고 파조이신 광원군(諱 克墩) 선조의 묘소와 셋째 아드님이신 감사공(諱 世貞), 감사공의 고손인 충민공(諱 尙安), 광원군의 넷째아드님이신 도정공(諱 世綸), 도정공의 아드님이신 상호공(諱 秀蒼), 도정공의 손자이신 장렬공(諱 潤德), 장렬공

의 고손인 병사공(諱 相項) 묘소를 찾아 설 성묘를 다녀왔다.

이날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총무 응재, 재무 용춘, 부사공종회 총무 용각, 첨정공종회 천수 회장,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 도정공종회 종찬 회장,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 광일회 윤재 회장, 감사공종회 석래 전 회장, 충희공종회 용식 전 회장, 충민공종회 종삼 회장, 도정공 종회 용각·용백·용윤 등 15명이 선조님들의 음덕을 기리며 성묘를 하였다.

성묘를 마친 종인들은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태능골화로구이 음식점에서 식사와 반주를 하면



광원군파종회 성묘

서 여러 가지 종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가화친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광원군파종회 총무 응재 기

2024년 광이 산악회 첫 산행

재경 화수회 산악회(회장 종철)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강동구와 하남시에 걸쳐 펼쳐진 일자산 산행을 하였다.

광이 산악회는 2024년 1월 28일 10시 30분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3번 출구에서 집결하여 인사를 나눈 뒤 “착한 낙지집” 운동장에서 간단한 산행 준비 운동을 마치고 일자산 산행을 시작하였다. 11시 20분경 둔굴에 도착하여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둔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각자 가지고 온 간식과 막걸리 한 잔으로 기분 전환겸 덕담을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한 뒤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였다.

둔굴은 고려말 둔촌 이집 선생께서 은거하신 곳으로 현재 둔촌동의 지명은 선생의 둔촌이라는 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둔촌 선생은 고려말에 등용된 대학자로 이색, 정몽주, 이송인 등과 더불어 절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공민왕 17년(1368년) 신돈의 실정 탄핵을 계기로 신돈의 박해를 피해 이곳 둔굴에서 일시 은거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은거 동안의 고난을 자손 후세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호를 둔촌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일자산은 산세가 완만하여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무리없이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산의 모양이 한문의 한일자를 닮아 일자산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2시간 정도 등반 산행을 하고 허브공원 쪽 아담하게 자리 잡은 대사골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용기 회원의 “우리 광이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시작으로, 맛있는

오리백숙으로 식사를 하였다.

종철 회장은 갑진년을 맞이하여 청룡의 기를 받아 광이 산악회도 승천할 수 있도록 산악회는 앞으로 씩씩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하였다

- 광이산악회 산악대장 종덕 기

광주전남종친회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 개최

대저 천지 만물은 정말 영원한 것이 없는가? 계속 추울 것만 같았던 겨울도 서서히 물러나고 이젠 봄이 오려나...

따스한 햇볕에 매화 향기 그윽한 2024년 2월 17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2층 대강당에서는, 광주전남종친회(회장 錦采)에서 마련한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원근 각지에서 130여 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일가의 끈끈한 정을 나누었으니, 이 또한 조상의 은덕(蔭德)이리라. 특별히 서울 대종회에서 용두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광원군(諱 克墩)파종회 용철 회장이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왔으며, 감사공(諱 世貞)종회 점식 회장이 먼 길 마다하고 참석하여 고맙기 그지없었다.

대종회, 사인공파종회, 문경공파종회, 광천부원군파종회, 광원군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와 광친회에서 행사를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주어 자

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그동안 종친회를 위하여 공덕을 쌓고 금년 향수 101세가 되어 종원들의 귀감이 되는 용선(容先) 현종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서 금채(錦采) 회장의 대회사와 있었고, 서울에서 참석해 준 여러분들의 축사가 있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위대하신 선조님들의 은덕(恩德)에 감사하고, 종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였다.

우리 광이(廣李)의 인구는 작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81,000여 명이라고 한다. 남한의 인구 5,175만에 비하면 300분의 1에 불과한 소수민족이지만, 오늘 우리처럼 시와 도 단위로 이렇게 매년 대대적으로 신년 하례식을 갖고 친목을 다지는 성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이것은 씨족 관념이나 애족심이 투철하게 타고난 유전자요, 우리 광이(廣李)의 저력이 아니겠는가? 정기총회인 만큼 유근(有根) 사회자의 작년도 경과보고와, 병전(秉鎭) 감사의 보고가 있었고, 부의안건으로 23년도 지출 결산 및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었다.

또한 문중에 경사가 있었으니, 보성 입향조 재실인 양진재(養眞齋)가 2월 15일 자로 전라남도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승인되어 앞으로



40여 일 게시판에 공고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문화유산에 등재하고 통지를 해준다고 하니 기대도 좋을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화기에애한 친족 돈목을 다지는 행사를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합

께 마친 후 참석 종원들은 각자 해산하였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임원들 10여 명은 용두 대종회 부회장과 함께 커피샵에 모여 부회장의 커피대접을 받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화사한 봄날처럼 우리 일가 모든 분들 조상의

음덕(蔭德) 듬뿍 받아서 더욱 강건하고 만사형통하기를 빌어 본다. 오늘따라 금싸라기 같은 햇빛(조상 음덕)을 받은 매화꽃(후손들)이 유난히도 향기롭다.

- 광주전남종친회 문화유사 용정記

충주종친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개최



2024년 2월 25일 10시 30분. 충주컨벤션센터 3층 연회장에서는 광주이씨 충주종친회(회장 원재)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은 120여 명의 종친회원과 각 지파 종회 집행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외빈으로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대신하여 용두 상임부회장, 충희공종회 종웅 재무, 광릉부원군파 종회 문수 총무, 광희 문경공(諱 克堦) 21대 종손,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화래 부회장, 종민 총무, 광천부원군파종회 종성 부회장, 종두 총무, 광원

군파종회 용철 회장, 용춘 재무, 좌의정공파종회 시하 총무, 승덕재공종회 상훈 회장, 도정공종회 여러 종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충주시가 지역구인 종배 국회의원, 종갑 충청북도 의회 부의장, 충주종친회 며느리 모인인 화친회 회원, 광주이씨 출가녀 모인인 청심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었다.

충주종친회 종무 총무의 진행으로 선조님에 대한 묵념, 회장 인사와 참석자 소개, 2023년도 경과보고 및 인환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원재 회장은 인사에서 “우선 충주 관내에 거주하는 우

리 광주이씨 일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면, 우리 종친들은 힘들 때나 즐거울 때 항상 함께하여 왔듯이 금년 4월에는 특히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만큼 종원들께서는 본인은 물론 주변에도 전달하여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도록 당부한다” 고 하였다.

이어서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충북도의회 종갑 부의장의 축사가 끝난 뒤, 6명의 종인 어린이들에게 세뱃돈 증정식이 있었다. 이는 어느 종친회에서든 찾아보기 힘든 우리 충주종친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하겠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뷔페식 오찬을 나누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종친간 정을 나누었다.

오찬 중 행운권 추첨에서는 사전에 제공한 행운권을 꼭 쥐고 당첨되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당첨자 발표가 호명될 때에는 박수와 한호로 축하해주기도 하였다. 아무쪼록 2024년도 광주이씨 충주종친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오늘 제반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충주종친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

- 충주종친회 총무 종우記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칠곡종회 정월 대보름 맞이 제1회 척사대회 개최

지난 2024년 2월 17일(토).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3길 27-27 소재 첨모재(칠곡 입향조 승사랑공 재실)에서 칠곡종회 주관 ‘2024년 제1회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擲柶, 윷놀이)대회’가 개최하였다. 칠곡지역의 회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파별 10여 개 팀으로 구성된 본 대회에서, 수호관리위원회 팀이 우승을 하였다.

대회에 앞서 승호 칠곡종회장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종인들의 화합과 만남의 장을 통해, 일치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친교와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더욱 성장 발전하는 광주이씨 모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종인들은 내내 즐거운 이야기와 놀이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미리



준비된 다과와 떡국을 나누어 먹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칠곡지역 특산품인 쌀 등을 선물로 준비하여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는 모든 종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잘 놀고, 잘 먹고 또 선물까지... 광주이씨이기에 가능한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달의 호국인물 독립유공자 공래(兢來) 애국지사

2024년 3월호 광주이씨회보에 소개할 광이 독립유공자는 광원군(諱 克墩)의 15대손 공래(兢來) : 1883. 9. 19 ~ 1950. 10. 30) 애국지사다.

공래(諱 兢來) 지사는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광암리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다가, 1908년 음력 10월부터 의병장 정용대(鄭用大)의 휘하에 들어가 양주군·포천군·적성군·영평군 등지에서 활동한 애국지사이다.

의병장 정용대(鄭用大)는 구한국군의 정교(正校:대한제국(大韓帝國) 때 무관(武官) 계급(階級)의 하나로 하사계급에 해당)로 1907년 8월 군대 해산(軍隊解散) 이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창(倡)하였다.

1907년 12월 양주에 집결한 1만여 명의 의병은 양주에서 13도창의대진(十三道倡義大陣所)을 편성하고, 총대장에 이인영(李麟榮)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병력을 24진으로 나누어 서울을 향해 진군하였다. 이때 군사장 허위(許蕙)는 결사대 300명을 이끌고 선두에서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나, 후발 부대가 미처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1908년 1월 13일 도창의대진소의 서울진공작



이공래 지사 묘역

전 무산(霧散)이후, 허위를 총대장으로 하는 관동창의원 수부에 참여하여,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은찬(李殷贊)과 연합 양주·부평·통진·풍덕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공래(兢來) 지사는 1908년 음 10월경부터 1909년 음 2월경까지 정용대(鄭用大)의 의진(義陣)에 가담하여 경기도 양주, 포천, 적성, 영평 등지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는 등의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래 지사는 1908년 10월(음)경 포천에서 군량미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유상으로 매입하는 등의 의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공래 지사는 1910년 7월 20일 경성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69의 1 내촌사곡산(內村寺谷山) 축좌이다. 유족으로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증손자 종영(鍾英, 010-5497-9331)이 있다.

지사(志士)의 계보는 唐-集-之直-仁孫-克墩-世綸-秀萱-潤德-汝良-孝誦-祉運-相頊-叙紀-碩鼎-命禧-時間-基東-昇會-秉龜-兢來이다.

주) 13도창의대진(十三道倡義大陣所) : 당시 창설에 참여한 의병장은 전라도 의병장 문태수(文泰洙), 충청도 의병장이강년(李康年), 강원도 의병장 민금호(閔肯鎭), 이인영(李麟榮), 경상도 의병장 신돌석(申玆石), 평안도 의병장 방인관(方仁寬), 함경도 의병장 정봉준(鄭鳳俊), 경기도 의병장 허위(許蕙), 황해도 의병장 권중희(權重熙) 등이다. 실제적으로 13도의 의병부대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국 의병부대를 대표한다는 선전의 의미가 강하였던 것이다.

대중회 주영 회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 취임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 취임식

광주이씨 대중회 주영 회장의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취임식이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배

용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이명수 국회MRA/IC의원연대 대표의원과 많은 시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MRA/IC란 '도덕재무장'이라는 의미로 'Moral-Re-Armament / Initiatives of

Change' 의 약칭이다. 옥스퍼드 그룹운동을 전개하던 프랭크 북맨(Frank Buchman) 박사가 1938년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 창시했다.

MRA/IC는 “도덕 표준인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실천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변화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RA/IC 운동은 세계 60여 국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전개하여 오다가 2001년 스위스에서 MRA/IC 국제연맹을 결성하여 국제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도덕재무장 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북맨박사가 아시아 순방 길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1945년 8·15해방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1948년 정식으로 한국본부가 설립되었고 1965년 서울의 MRA 세계대회, 1966년 MRA 아시아 대회 이후, 1969년 문교부 장학지침으로 전국 각지의 중,고교 특별활동으로 보급되고 아시아 청년들로 편성된 심아웃 아시아가 방문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가짐으로써 MRA 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발전하였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전국 중·고 등·대학교에 MRA 조직을 만들어 청소년의 도덕적 자각을 촉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1982년 6월 4일 사단법인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로 정식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영 신임 총재는 1967년 경기고 MRA/IC 단원 활동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MRA/IC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취임식

에서 주영 총재는 '나 자신부터의 변화' 끊임없는 도전' 굳건한 자신감' 이라는 MAR/IC 정신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 왔다"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계의 모든 지도자들도 도덕재무장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길"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선 첫째 MRA/IC 운동을 통한 청소년 가정교육 둘째 초, 중, 고,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의 MRA/IC 교육 실현 셋째

MRA/IC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활용 넷째 소설·시·수필 등 문학분야, 뮤지컬 등 음악분야, 그림 등 미술분야를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 강화 다섯째 다른 나라의 MRA/IC운동 동지들과의 교류 강화 여섯째 재정 확보 및 조직 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영 총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1시 마포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한국본부 임원 및 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재무장 운동과 변화 주도 운동을 전개할 신임 총재로 선임된 바 있다.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신임 총재 취임식에 다녀오다



회의장 전경 및 축사를 전하는 내빈

일시 : 2024. 2. 19. 4:00 ~ 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 : 이주영 신임 총재 및 내빈 500여명 이상

어제는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제5대 이주영 총재의 취임식에 초대받아 다녀왔다. 어제는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4시가 넘어 도착하니 500석 대회의실에 입추의 여지 없이 하객들로 꽉 찼으며 뒤에도 서고 계단에도 앉아 있는 하객들로 발 디딜 틈도 없다.

마침 요인들로부터 축사가 끝나고 차광선 명예총재의 MRA/IC 운동의 배경과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차광선 전임 총재와 이주영 신임 총재의 발표문 및 문화저널 21의 이한수 기자의 기사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이주영 신임 총재는 "지금까지 이뤄낸 업적을 계승해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에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총재에 선임되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차광선 전임 총재의 혼을 다한 헌신

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라며 "역대 정준, 강석규, 김상원 총재께서 이룬 업적들을 잘 계승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덕재무장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프랭크 북맨 박사가 제창한 기독교 정신에 근본을 둔 윤리적 평화운동이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룩해 행복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평화를 확립해 인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적 아래 발족했다. 특히 ▲개인도덕 '정직' ▲가정도덕 '순결' ▲사회도덕 '무사(無私)' ▲인류도덕 '사랑' 등 4가지를 도덕표준으로 삼고, 인종·종교·계급·국적의 구별 없이 화합할 것을 역설한다.

국내에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북맨 박사가 방문했고 광복 후 점차 발전해 1948년 한국본부가 설립됐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덕재무장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주영 총재를 필두로 도덕재무장 운동을 통해 성숙한 사회 분위

기를 만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의 총회 결의에 따라 명예총재로 추대된 차광선 명예총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풍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양심적으로 올바른 국민이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른 길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8년에 서울시 MRA 고등학생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는데 당시 경기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회장을 맡은 학생이 바로 이주영 총재였다"며 "성실하고 훌륭한 한국의 지도자 중 한 분으로 이 운동을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총재는 57년 전인 1967년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MRA 운동에 참여했다. 1968년 7월 'MRA 서울지구 고등학생대회'에서 대회장을 맡아 대회를 조직하고 메시지를 채택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에 보내는 일도 진행했다.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회답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주영 신임 총재는 ▲모든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도덕에 대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운동 전개 ▲초·중·고·대학서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진행 ▲교도소·소년원 재소자에게 도덕재무장 운동 방법 전파 ▲문화·예술 활용한 흡인 효과 제고 ▲MRA/IC 훈련센터 건립 및 세계 교류 기회 확대 ▲재정 확보 등 6가지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통령도 반드시 도덕 재무장이 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계의 모든 지도자도 도덕 재무장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 실현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의 기사 전재; 네이버



두손을 번쩍 치켜올리고 내빈들께 화답하는 이주영 신임총재와 차광선 명예총재

백과참조).

이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겹치고 길이 막혀 30여분 늦게 도착하여 회의장에 들어가니 정덕 종친이 반갑게 맞는다. 맨 뒷 좌석에 앉아 있는 상림 공간대표와 종친회의 종철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종철 광문회 총무가 일어나 필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친절한 종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림대표 옆에 편하게 앉아 진행되는 회의를 지켜볼 수 있었다. 안 그래도 회의장으로 오면서 경제 전 의원과 향재 종친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물

으니, 두 분 모두 다른 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 간만에 종친들을 만나니 반가웠다. 특히 정덕과 종철 종친은 뒤에서 있어서 속으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오늘 세계 도덕재무장 운동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느낀 소감을 몇 자 적어 본다.

첫째 오늘 이식에 참석하여 도덕재무장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에서 밝힌 ‘도덕재무장 운

동을 통해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라는 말에 심분 공감하며, 이주영 신임 총재의 인사말 중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종사하는 모든 국민과 고위 공직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도덕 재무장이 되어야 한다’ 고 주창한 말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다.

둘째 ‘도덕재무장 운동은 미국의 프랭크 북맨 박사가 제창한 기독교 정신에 근본을 둔 윤리적 평화운동이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룩해 행복한 세계

를 창조하고자 하는 운동임 ‘을 알게 되었고, 바로 우리부터,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세계가 이 운동의 물결에 시급히 올라타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셋째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아니 우리 환경건축연구원부터 적극 동참하기로 작심하고 가족들과 연구원 관계 임원들과 협의하여 그 지원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가 미력이나마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운동에 대한 핵심 내용을 공부해 나아가면 좋을 듯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오늘 행사에 늦게라도 잘 참석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TV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이주영 총재로부터 반가운 인사 전화를 받았다.

앞으로 이 총재의 양어께가 무겁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자고 화답하였다. 이튿날 아침 연구원에 출근하자 부이사장을 불러 즉시 내달부터 우리 연구원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 뜻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을 협의하였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며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 2024. 2. 21. 새벽녘에 서빙고현에서
(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범산 이경희

‘남동경협’ 이영재 회장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



영재 회장 수상 후 인천광역시 시장과 함께 기념촬영

2023년 12월 12일 오후 6시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된 인천을 빛낸 인천인 대상 시상식 및 2023년 인천인 송년의 밤 행사에서

본문 이영재 회장(제이씨텍(주) 회장,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이 인천지역 제조 기업인을 대표해 <2023년 인천을 빛낸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아홉 번째를 맞고 있는 본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을 빛낸 인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그동안 시상 이후 40여 명 정도가 수상하는 등 1,000만 인천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의미있고, 명예로운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재 종인이 회장으로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1991년 12월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돼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고 있으며,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인천지역 산업단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이영재 회장은 그동안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개선 건의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5개 정부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협업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앞장서 왔다. 영재 회장은 종사에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양사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영재 종인의 계보는 唐-集-之直-仁孫-克墩-世綸-秀萱-潤德-汝良-孝訥-祉運-相頊-叙紀-碩鼎-命禧-時間-基濂-榮會-秉參-忠來-容九-英載 이다.

보학교실

과일의 품수(品數)에 대한 문답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疑禮問解) - 제례(祭禮) - 시제(時祭)]에

[문] 《가례》를 보면 시제를 지낼 적에 과일은 6품을 쓰는데,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5품을 쓴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동춘당 송준길 -

[답] 《격몽요결》은 대개 사마온공(司馬溫公) 및 정자(程子)의 의절(儀節)에 근본을 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르다고 하고 있다. 《예기》를 읽어 보면 흑자의 설이 근리(近理)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6품의 과일을 갖추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4품이나 혹 2품을 쓰면 아마 예의 뜻에 합치될 것이다.

○ 《예기》 교특생(郊特性)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때에는 정(鼎. 솥)과 조(俎. 도마, 적대)는 기수(奇數. 홀수)로 하고, 변(과일 그릇)과 두(고기 국그릇)는 우수(偶數. 짝수)로 하는데, 이것은 음양(陰陽)을 구별하는 뜻이다. 변과 두에 담은 내용물은 물이나 흙에서 나는 것으로 한다. 감히 맛을 가미하여 설만하게 하지 않으며, 물건 수를 많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는 신명과 교감하는 뜻이다. [鼎俎奇而豆偶 陰陽之義也 豆之實 水土之品也 不敢用褻味而貴多品 所以交於神明之義也]” 하였다.

○ 장락 진씨(長樂陳氏)가 말하기를, “정(鼎)과 조(俎)에 담은 과일은 천산(天産)을 위주로 하여 담는데, 천산은 양(陽)에 속하므로 그 숫자는 기수(奇數)로 한다. 변(과일 그릇)과 두(고기 국그릇)에 담은 과일은 지산(地産)을 위주로 하는데, 지산은 음(陰)에 속하므로 그 숫자는 우수(偶數)로 한다.” 하였다.

※ 기수(奇數)나 우수(偶數)나 하는 것은 과일 등의 낱알의 개수를 이름이 아니라 담아 놓는 접시 수를 말함이다. 까닭에 지산(地産)인 과실(果實)은 4접시 또는 6접시 등 과(果)행은 우수(偶數- 짝수)로 진설이 되는 것이다.

천산(적 종류)은 접시수로 홀수, 지산(과일 종류)는 접시수로 짝수이다.

천산양수(天産陽數), 지산음수(地産陰數)는 접시의 수를 의미한다. 과일이나 제수(祭羞)의 개수(個數)와는 무관하다.

기일이 윤달에 있거나 그믐날에 있을 경우의 예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疑禮問解) - 제례(祭禮) - 기일(忌日)]

[문] 어떤 사람이 윤정월(閏正月)에 죽었을 경우에는 기제를 본정월(本正月)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윤정월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느 달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큰달의 그믐날에 죽었으면 뒤에 작은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29일을 기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뒤에 다시 큰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 30일로 기일을 삼는 것이 마땅합니까? 작은달의 그믐날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큰달을 만나면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역시 그믐날을 중하게 여겨 30일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까?

- 동춘당 송준길 -

[답] 《통전》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혹자는 “윤달에 죽었을 경우에 뒤에 윤달을 만나면 마땅히 본월(本月)을 기일로 삼아야 하고, 윤달의 죽은 날에도 소식(素食)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운운하였네. 그리고 큰달의 30일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작은달을 만났으면 마땅히 29일로 기일을 삼고, 큰달을 만났으면 마땅히 30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네.

작은달의 그믐날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큰달을 만나면 마땅히 그대로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는바, 30일이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통전》에 이르기를, “범녕(范寧)이 말하기를, ‘윤달이라는 것은

여분(餘分)의 날짜를 가지고 달을 불어나게 한 것일 뿐으로, 정식의 달이 아니어서 길흉(吉凶)의 대사(大事)에 모두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자가 초하루를 고하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가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윤달에 죽은 자는 상제(祥祭) 및 기일을 모두 윤달이 붙은 바의 달을 바른 달로 삼는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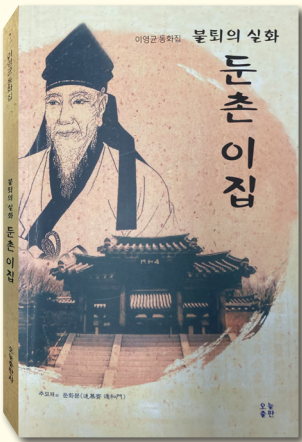
○ 유율지(庾蔚之)가 이르기를, “금년 말 30일에 죽었는데, 다음 해 마지막 달이 작을 경우, 지난해 29일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 응당 다음다음 해 정조(正朔)를 기일로 삼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달에 죽은 자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다.” 하였다.

※ 사계전서(沙溪全書)는 조선시대 학자이며 문신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87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이 문집은 원래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라는 이름으로 2회에 걸쳐 간행된 바 있다.

초간본은 1685년(숙종 11) 왕명에 의해 그의 문인 송시열(宋時烈)이 편집하여 1687년 교서관(敎書館)에서 간행했고, 재간본은 1792년(정조 16) 후손인 김희(金熹) 등이 이전의 판본을 개각하여 간행하였다.

김장생(金長生 1548 ~ 1631년)의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호는 문원(文元)으로 명종 ~ 인조 연간 학자이며 문신으로 조선 예학의 태두로 예학파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영균 종인 동화집 “불퇴의 실화 『둔촌 이집』” 발간



중견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본문(本門) 이영균(李永鈞) 시인이 “동화집 불퇴의 실화 『둔촌 이집』”을 펴냈다. 첫 번째 동화집 『푸른 강변마을의 느티나무』에 이은 두 번째 동화집이다.

작가는 후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선인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만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당시에는 세상에 이로운 듯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해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본 동화를 펴냅니다」라고 하였다.

본서는 광주이씨의 중흥을 이룬 둔촌 선생의 일대기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 형식을 빌어 펴낸 동화집으로 정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작가는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고 실사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과 고뇌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특히 본 동화집은 어린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저자는 많은 독자들에게 보급하고자 구매를 원하는 우리 종인들에게는 특히 염가로 제공하겠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이영균 작가는 광주이씨 목사공(諱 之柔)의 후손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2004년 격월간 「좋은 문학」으로 시 부문과 2019년 계간 「소설 미학」으로 동화 부문에 등단한 중견 작가이다. 「좋은 문학대상 제6회 한국시인상」, 「인천 펜문학상」 등 많은 수상을 받았고, 시집 『하얀 아침』, 『금빛 하늘』, 『꽃씨가 될 때까지』, 『마음의 집 짓고 있다』 등 많은 작품집을 출간했다. 현재 국제펜한국본부 회원으로 탄천문화회원, 한국소설창작연구회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퇴의 실화 둔촌 이집』

펴낸곳 : 오늘출판사

정가 : 18,000원 (종인들에게는 염가 제공)

연락 및 구입처 : 영진산업 031-996-6222

이 영 균 010-3302-6190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1-2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창수	10,000	서울 성북	이종수	10,000	경남 마산	이주철	10,000	서울 성북
이종구	100,000	경기 양평	이주용	10,000	서울 금천	이주섭	10,000	경기 의왕
이수평	20,000	대구 북구	이성희	10,000	서울 송파	이지수	10,000	경기 광주
이용길	10,000	경기 수원	이주현	10,000	서울 영등포	이성수	10,000	충북 청주
이준석	10,000	충북 제천	이승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중희	10,000	경기 광주
이종현	30,000	서울 성북	이삼래	10,000	광주 남구	이상호	10,000	경기 광주
이찬재	10,000	서울 서초	이근두	20,000	인천 강화	이상수	10,000	충북 청주
이근영	20,000	강원 횡성	이정수	10,000	충북 청주	이주형	10,000	경기 부천
이명수	20,000	충남 부여	이주동	10,000	충북 청주	이필수	10,000	경기 광주
이헌진	10,000	경북 칠곡	이창재	10,000	전북 순창	이주신	10,000	경기 성남
이근형	10,000	경기 하남	이종덕	10,000	충북 단양	이명수	10,000	인천 미추홀
이호재	20,000	서울 영등포	구미 다식중회 10,000 X 10명 =100,000원			이용희	10,000	경기 광주
이정실	20,000	서울 마포	이석재	10,000	경북 구미	보광회 10,000 X 22명 =220,000원		
이숙재	10,000	광주 남구	이종현	10,000	경북 구미	이용의	10,000	서울 금천
이태환	20,000	경북 칠곡	이준재	10,000	경북 구미	이종면	10,000	서울 강남
이영근	20,000	서울 은평	이욱재	10,000	경북 구미	이종길	10,000	서울 강남
이종권	10,000	서울 강남	이용택	10,000	경북 구미	이용도	10,000	서울 서초
이헌래	20,000	광주 북구	이용근	10,000	경북 구미	이욱재	10,000	서울 강동
이용혁	10,000	광주 남구	이필재	10,000	경북 구미	이민재	10,000	경기 고양
이희재	10,000	경남 하동	이종하	10,000	경북 구미	이용발	10,000	경기 용인
이수영	10,000	서울 노원	이수광	10,000	경북 구미	이순재	10,000	서울 서초
이용휘	20,000	서울 강동	이승찬	10,000	경북 구미	이광래	10,000	서울 서대문
이근섭	10,000	경기 광주	광릉부원군파중회 10,000 X 26명 =260,000원			이종호	10,000	경기 용인
이성수	10,000	서울 노원	이주영	10,000	경기 광주	이종구(의원)	10,000	서울 강남
이용균	30,000	전북 남원	이종길	10,000	경기 광주	이용균	10,000	경기 의정부
이철우	10,000	부산 영도	이철수	10,000	경기 광주	이정재(한실)	10,000	서울 관악
이유진	10,000	대전 중구	이종택	10,000	경기 광주	이용만	10,000	경기 부천
이종세	20,000	서울 금천	이종수	10,000	경기 광주	이중재	10,000	서울 강남
이주원	10,000	대구 달성	이주동	10,000	경기 광주	이광재	10,000	서울 동작
이용건	20,000	부산 남구	이화준	10,000	경기 광주	이종걸	10,000	경북 구미
이주홍	20,000	경기 안산	이주찬	10,000	경기 광주	이종률	10,000	서울 서초
이종대	10,000	서울 강남	이만수	10,000	경기 광주	이호재	10,000	서울 영등포
이광수	20,000	강원 횡성	이주석	10,000	경기 광주	이태호	10,000	서울 마포
이종민	50,000	경기 안양	이엄수	10,000	경기 광주	이용재	10,000	서울 성동
이태수	10,000	경기 수원	이주홍	10,000	경기 광주	이중승	10,000	경기 부천
이수강	100,000	경기 성남	이주송	10,000	경기 부천			
이한주	20,000	충북 진천	이주일	10,000	경기 남양주			
이갑수	10,000	미기입						
이종일	50,000	경기 하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3月 1日

<제396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暲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